

여성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기구해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다 어렵게 한 두 마디를 꺼내면 붓물터지듯 긴 이야기를 풀어낸다. 단단히 묶여있던 끈의 첫매듭을 풀기 어려운 것과 같다. 일단 그 매듭이 풀리면 오래 내장해 두었던 이야기의 실마리들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에는 80-90쪽을 육박하는 긴 생애담이 여러 편 있다. 곤경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겨낸 긍정의 힘이 긴 서사를 가능하게 한 것도 같다. 또한 뛰어난 이야기꾼의 면모를 보인 구연자도 많은데, 이는 조사단이 구비문학적 방법론을 표방하면서 생애담의 ‘이야기’를 살리고자 노력한 성과로 평가될 만하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리얼리티와 탄탄한 구성은 놀라운 내용의 에피소드들과 함께, 소설이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문학예술 창작의 소재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옥의 티를 지적하자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이다. 이는 방언 표기상의 문제, 채록의 오류, 오자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 책의 생애담 자료는 지역 방언으로 구술된 육성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어서 그 방언권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쉽게 읽히기 어렵다. 따라서 어려운 사투리에 대해서는 괄호로 표준어를 제시하거나, 각주로 주해를 달아서 이해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책의 경우, 표준어의 제시와 주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료를 읽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특히 제주도 자료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생애담들이 지닌 문제이다. 과연 방언의 정확한 채록인가가 의심되는 부분도 많다. 오자 또는 채록의 오류가 자주 눈에 띄는 것도 문제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야 이년야. 니가 내 가고 나서 잘 사는가 보다.”(2권: 163쪽)

“즈그 어때 뭇이구 뭐고 내한테 타 있었그든.”(2권:163쪽)

위의 인용에서 줄친 부분은 각각 ‘이년아’, ‘보자’, ‘웃이구’로 바뀌어야
 옳다. 또 아래와 같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장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늬두라 두다가 만들지 그라 늬뒤, 틀렀다 실더라이 장용하에 가마히 뒸다.
 거 용이나 록 시쳐가지고 요 록 시쳐가지고 마 후마빨통냈다.(1권: 103쪽)

조사자의 말이나 청중의 개입을 제시하는 데 통일성이 부족한 것도 문
 제이다. 구연자가 조사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고 혼자서 내리 구술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구술은 구연
 자, 조사자, 청중이 벌인 이야기판에서 이루어졌는데, 채록에서 청중이나
 조사자의 개입을 적극 반영한 자료와 그렇지 못한 자료가 있어 텍스트의
 양상이 들쭉날쭉해진 것이다.

물론 이상의 문제들이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여성들을 만나서 귀 기울
 이고 공감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담아낸 이 작업의 빛나는 성과를 감하는
 것은 아니다. 구연자를 찾고 현지조사 자료를 축적하는 이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채록하는 일은 인고를 요구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방언의 주해나
 채록상의 오류는 조사와 채록에 참여한 보조원들이 대부분 표준어 세대
 이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 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가독성의 문제는 사
 소한 것이 아니다. 자료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독자를 확
 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의 기회에 수정 보완작업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